

☎ 의 : 010-4735-1808

중·고등 교과서 종교편향 대책 세미나

전통적 사용 ‘기독교’ 호칭 일체 삭제, 크리스트교로 포괄

‘중고등 역사·세계사 교과서의 종교편향과 역사왜곡 대책’을 주제로 제1회 포럼이 진실역사교육연구회(대표 홍영태) 주최로 지난 7월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진실역사교육연구회는 이날 교육부에 검정 중고등역사·세계사 교과서의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성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소장(선교신학연구소)은 “이슬람 편향적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 2018미래엔 교과서를 분석하면서 교과서가 이슬람의 선전도구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슬람 편향적인 우선순위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보면 1400년의 역사 밖에 안 되는 이슬람교 역사를 총 18페이지의 면적으로 사용했다”며 “반면 4000-3500년의 역사를 가진 인도 역사와 한두교 문명



을 섞어서 약 2500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 역사를 이슬람 후편에 두고 도약 6페이지 할애해 3배나 더한 면적을 할애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교육부는 ‘크리스트교’라는 단어를 누구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졌는가”라며 “기독교의 호칭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와 중학교 역사1교과서에서 일체 다 삭제해 이름조차 낯선 ‘크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바

꾸고 개신교와 천주교와 정교회들 다 포괄한 개념으로 통합종교 형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준채 외 5명이 집필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 크리스트교에 할당할 지면은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의 교회사를 다 포괄해 ‘크리스트교’에 할당할 면적은 총 10페이지이며 이중 기독교에 해당되는 면적은 총 2페이지다”고 말했다.

종교문제대책전략연구소 출범

심우영 소장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전략적 대책 필요”

종교문제대책전략연구소(소장 심우영 목사)는 오는 9월 11일(화) 롯데시티구로호텔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한다.

심우영 소장은 종교문제대책전략연구소를 출범한 배경에 대해 “현대종교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 현상이 있었고, 교단 총무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교회의 이단사이비 연구의 보완해야 할 잘못된 부분을 보았다”며 “이단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한 이제는 전략적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심 소장은 “한제 한기총 신천지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교회 일부 이단사이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패해를 보았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람들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문제에 대한 정보를 검증하고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체보하는 내용이나 간증 비슷한 것에 대해 의



존해 상대방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았다”며 “가치적인 시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 신학자들에게 맡겨서 이에 대한 공극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서 심 소장은 “신천지만큼 위급한

문제가 있는데 동방번개 전능신교의 포교양상이 신천지와 비슷하다”며 “전능신교도들이 몇 년 전부터 난민신청하며 포교를 하는데 이때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남은 가족들이 큰 피해를 당하는 사례 등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소식에 의하면 동방번개파에서 총복 등에 투지미인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곳에 연수원이나 수련원을 세우면서 침술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가정마다 포교를 하고 있는 포교활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심 소장은 한 가지 예로 “당시 세모자 사건은 일부 이단 연구기들과 언론에서 정확한 조사와 연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확인됐지만 당시 관련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리고 잡는데 조사와 연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촌교회, ‘우간다에 성경 보내기’ 후원



대한성서공회는 신촌교회(담임 박노훈 목사)의 후원으로 우간다에 성경을 보내는 기증식을 지난 7월 24일(화) 반포센터(경기 도 용인시 소재)에서 가졌다.

신촌교회는 지난 2016년 가나에 성경을 기증한 데 이어, 금년에도 ‘우간다에 성경 보

내기’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5월 한 달 동안 전 교인들이 우간다에 성경을 보내기 위해서 헌금에 참여했고, 그 열매로 총 5가지 부족어로 1만 7천 122부의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 중앙 동부에 위치한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자연경관과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약 34개의 소수 부족이 있다. 그러나 약 20여년간 지속된 내전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오랜 내전으로 경제발전이 늦어진 우간다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또한 반군을 피해 삶의 타진에 떠나 난민캠프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와 난민들은 내전으로 인한 상처를 품고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우간다성서공회는 교회와 협력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칼빈대, 사랑나무협동조합과 업무협약

김복미 대표 칼빈대에 3천만원 발전기금 전달

칼빈대학교(이사장 김진웅 박사, 총장직무대행 김근수 박사)는 지난 7월 26일 사랑나무협동조합(대표 김복미)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육·학술연구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고 산학연계 공동연구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외에도 △교과운영, 교육과정에 대한 지문 및 참여 △산학연계 공동세미나 개최 시 상호 협력 지원 △산업체 임직원의 대학·대학원 지원 시 우대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 및 협조 △장학사업에 대한 협력 및 지원 등을 협의했다.

업무협약식에서 김복미 대표는 칼빈대에



3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고, 칼빈대와 협력해 더 나은 교육서비스 개발에 앞장서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다음 세대 육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칼빈대 김진웅 이사장은 “같은 목표를 갖고 사랑나무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갖게 돼

감사하다”면서 “김복미 대표가 뜻깊은 기금을 기증해 고맙다. 교육자로서 더욱 책임을 느끼며 사랑나무협동조합과 함께 선한 사역을 이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약의 기간은 1년이고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공동체 정신 함양 살기 좋은 마을 선도

장헌일 원장, 마포구 16개 동자치회관 운영 평가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생명나무교회 목사)은 지난 7월 23-24일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 관내 16개 동 주민자치회관 운영실적 현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마포구는 도시화로 주민 간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공공의식이 약화되는 시대적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선도해 가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치구이다.

장 원장은 자치행정과(과장 이국환)에서 제시한 ‘마을공동체 사업 5가지 지표’ 사업의 독창성과 지속가능성, 주민자치 발전에 끼친 효과와 영향력, 타 자치회관 파급가능성,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 참여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주민센터의 상

호 협력 정도를 토대로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의 발표를 듣고 현장평가와 함께 정책적 자문을 통해 마을 리더십과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격려를 전했다.

마포구 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장 원장은 “각 동별로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마을 축제는 물론 지역을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나눔이 있는 마을 사람의 정신이 남아 있어 살기 좋은 마포구임을 현장에서 확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하면서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 주민참여가 점차 줄어가고 있는 동주민자치회관들도 다양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유관기관과의 연결된 3세대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혈·장기기증 50주년, 생명과 사랑 전해”

헌혈 및 장기기증의 주인공, 장기이식 의료진들과 감동적인 만남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는 고귀한 사랑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헌혈 및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운동이 국내에서 시작된 지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3일(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생명나눔 50주년 기념행사(이하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부부·자매·모자·부자 신장기증인 등 국내 최초의 기록을 가진 주인공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기념행사에는 신장기증인,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및 이식인과 그 동안 생명나눔운동에 힘을 모아 준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였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 식전행사

로 생명나눔 사진전이 마련돼 50년 동안 생명나눔운동이 결어은 발자취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감사예배로 그 문을 열었다. 본부 명예 이사장 김해철 목사는 ‘Go&Do의 기적 반세기’라는 설교를 통해 고등반은 이웃들을 향한 생명나눔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고귀한 사랑을 실천한 생명나눔 주인공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세계 최초로 진행된 릴레이 신장이식 수술의 주인공 11명과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부부가 모두 신장을 기증한 부부신장기증인 8쌍,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부자기증인, 자매기증인, 모자기증인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또한 뇌사 장기기증 유가족 대표로 미국 유학 중 장기기증을 한故 한봄이 씨의 아버지 한정남 명예이사장이 참석했다.

SPC그룹, 구세군한아름 부자가족 지원

구세군 한아름(원장 홍봉식 사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한 SPC그룹(회장 허영인)의 후원금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인천광역시 아담채(원장 홍진규)에서 전달받아 부자가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달식에서 SPC그룹은 저소득 부자가족의 생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올해 초 ‘SPC Happy Share 캠페인’을 시작, 카카오톡 사회공헌서비스인 ‘카카오 길이가치’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는 일반 참여자인 시민들이 SNS에 공유하거나 응원 댓글을 달면 전달 정해진 후원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한부모 부자가족을 지원하는 구세군한아름의 사연이 선정되어 후원금을 전달받게 된 것

구세군한아름 홍봉식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 부자가족들은 가사와 자녀 양육,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SPC그룹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한부모가족들이 힘을 내서 오늘을 살아가 수 있게 됐다”며 “구세군한아름에서 생활하는 부자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후원해주신 SPC그룹에 감사드린다. 덕분에 자녀와의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SPC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들을 발굴하

여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답했다.

구세군 관계자는 “구세군 1호 성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는 SPC그룹의 후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부자가족들의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구세군한아름은 2011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부자공동생활시설로 57명이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굿네이버스, 라오스 피해지역 긴급구호 착수

라오스 아타푸 주 1만2000여 명 이재민 발생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는 수해가 발생한 라오스에 5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를 실시한다.

지난 7월 24일, 라오스 아타푸 주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UN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700여 가구 1만20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해당 지역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생존자 및 실종자 수색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긴급구호대의 의료팀을 파견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사교수

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굿네이버스는 긴급구호 상황실을 설치하고 굿네이버스 라오스지부로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해 인도주의적 지원의 긴급구호를 착수했다. 굿네이버스 라오스지부는 긴급구호 인력을 수해 지역으로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라오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임시 거주 및 위생키트 등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굿네이버스는 현장조사 후 5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라

오스는 현재도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굿네이버스는 긴급구호를 통해 갑작스런 수해로 고통 받고 있는 라오스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카카오톡 길이가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모금캠페인 ‘라오스 홍수 피해 주민들을 도와주세요!’ (together.kakao.com/fundraising/55921)을 진행하고 있다.

2018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미래를 짊어질 미래의 주역들과 함께

‘은혜’ (벧후 3:18) 주제로 2박 3일간 평창에서
총회장 임웅재 목사 등 청소년들에게 비전 심어



정부용 목사
대림멜로교회 당회장

교단 교육국 주관 2018 제6회 청소년 연합수련회(대회장 임웅재 목사)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수)까지 2박 3일간 대림멜로교회(당회장 정부용 목사) 평창수양관에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하나 된 가운데 열려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를 믿음으로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들과 함께 은혜충만, 말씀충만, 성령충만한 시간을 함께 했다.

전국에서 지방회 신하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운데 부대위를 부설하게 할 정도의 뜨거운 열기 속에 2박 3일간 계속

된 이번 캠프는 ‘은혜’(벧후 3:18)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라』라는 주제 아래 교단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개회예배 설교로 시작되었다.

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품고 깨어 기도하며 세계를 향해 도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 지방회 소속 교회별로 참여한 청소년 3백여 명이 2박 3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과 하나가 되었고 세상에 나가 빛을 말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교단 총회장 임웅재 목사의 개회예배 설교를 비롯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총무 신재영 목사, 교육국장 조선남 목사, 이경진 목사, 임형순 목사, 오세준 목사의 주제별 특강, 변원식 목사의 레크레이션 인도, 찬양본서트, 경배와 찬양, 공동체운

련, 간증 및 시상 등 다양한 순서와 함께 이번 캠프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뜨거운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 한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청소년들의 찬양의 열기가 가득한 수련회가 되었다.

진행위원



조선남 목사
교단 교육국장



오세준 목사
진행위원



임형순 목사
진행위원



변원식 목사
진행위원



권승철 목사
진행위원



고대운 목사
진행위원



개회예배 설교
총회장 임웅재 목사



부총회 인도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대림멜로교회 평창수양관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70주년을 경축합시다

☑ 오는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의 해방 7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로 정하고, 내년에 건국100주년 행사를 하겠다며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우리는 건국70주년을 맞이하여 건국과 헌법정신을 계승하여 북한동포를 폭압체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선진 통일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진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 이에 우리는 민간 주도로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위원회를 조직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 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건국70주년 세미나

▶일 시 : 2018년 8월 9일(목) 14:00~17: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자유민주진영 대 민주진영 토론회

▶일 시 : 2018년 8월 13일(월) 13:30~16:3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식

▶일 시 : 2018년 8월 15일(수) 10:00~11:3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대한민국 건국7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대표) : 심재철 김문수 김태훈

▶고문 : 노재봉, 박관용, 정기승, 이인호, 최대권 ▶공동위원장 : 이주영, 박대출, 김진태, 이종명, 박정기, 송대성, 임정혁
▶참여단체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자유민주 국민연합, 한국자유회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 총80개 ▶해외참여단체 : 3.1USA, 대한민국 국민수호유류연대, 세계애국동지회, 한미자유연맹, 한미동맹협의회, 재뉴욕 대한민국 애국연대 등 총 20개

■ 생명의 말씀 ■



임영광 목사

· 경기지방회 중경회장
· 연천순복음교회담임

행복에 관한 흥미로운 두 가지 조사를 립소스라는 글로벌회사에서 실시했습니다. 먼저 24개 나라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아주 행복하다' '그저 그렇다' '불행하다' 라는 주제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위인 도네시아, 24위 헝가리,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 23위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조사는 124개국 1억 5천만 장의 웃는 사진을 가지고 나라별로 분류해서 전문가들이 행복지수의 점수를 냈을 때 브라질이 1위, 미국이 33위, 캐나다가 45위, 꼴찌가 일본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2위인 123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OECD국가 중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자살을 1위, 정치불신 1위, 이혼율 1위, 알콜중독 1위이다 보니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민족도 행복할

수 없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시고, 흩어진 유대민족을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되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잊었던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타락한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립하는 성결운동을 일으키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사나라의 포로였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쓰실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슬픔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본문 2-3의 말씀을 보면 유대에 남은 동족들은 환년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회복되고, 성문들은 다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눈물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느 1:4)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상황에 있던 가장 먼저 행할 것은 기도일

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요, 교회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요,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요, 우리 지방회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요, 서로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 26:41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고, 램 33:3에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매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기도해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둘째 환경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하다보면 자신의 약함을 보게 되고, 무능함을 보게 되고,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깊이 보게 되면서 결국은 나를 포기하게 되고 대신 주님이 사시는 은혜가 있기에 기도하다보면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15:31에 "형제들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

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도로 죽이고, 기도로 살리고, 기도로 낮추고, 기도로 꿈꾸고, 기도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 사 용하여 주십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계속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다스다왕의 마음을 움직여 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느 2:1-5을 보면 특별히 느 2:4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 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느 2:8에 보면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 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응답 하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하십니다.

시 121:1-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 사랑으로 품는 지도력(느 2:11-18 열정과 행함으로)

우리는 첫째 느헤미야처럼 국가를 품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처럼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셋째 바울처럼 성도를 품어야 합니다. 넷째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을 품어야 합니다.

3.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

느 6:1-4을 통해서 나타난 산발랴와 도 비아의 휘방과 음모를 보면 살해음모 역적으로 만들려는 음모, 범법자로 만들려는 음모와 함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보여준 것은 환경에, 사람에게, 불신앙의 말에, 안 되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니다.

4. 책임을 다하는 지도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조국 앞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실천하는 책임지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5. 결론

기도로,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지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고 민심의 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현 정부의 이 같은 안하무인 격 태도는 한 마디로 전체 국민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이며 오로지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밀고 나가겠다는 고집으로 보인다. 이를 통과시킨 국무위원들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들의 외침에 아예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보고 듣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적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맘과 피를 흘리며 반대한다면 이에 대한 해명이나 또는 독소조항을 수정하거나 적어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마치 무엇에 쫓기고 쫓기는 듯이 국무회의에서 해치워 버린 것이다.

대통령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다. 그럼 왜 국민들이 NAP를 반대하는가? 당연히 이러한 법과 제도로 인하여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이다.

동 정

미 법무장관 "종교자유 위한 TF"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미국 법무 장관은 사법부 내에 '종교자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세션스 법무 장관은 "종교자유 TF는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종교자유에 관한 지침서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총장 장신대 동성애반대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성빈 총장이 '장신 공동체에 드리는 총장서신'을 통해 '동성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총장은

"우리는 교계의 우려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학생들을 엄중히 지도할 뿐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며 온전한 지도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 김사랑 케냐에 후원금 전달



배우 김사랑이 지난 7월 25일(수)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케냐 빈민가에 거주 중인 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금은 김사랑이 지난 4월 SBS '2018 희망TV SBS'를 통해 케냐에서 만나고 온 아동 토니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김사랑은 '토니의 꿈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 청빙



포항제일교회가 한일장신대 박영호 교수(신약학)를 위임목사로 청빙했다.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박영호 교수

는 장로회신학대학교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석사,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PCUSA) 교육목사로 있었고, 2005년 시카고 약속의교회(PCUSA/KPCA)를 개척해 2015년까지 목회하기도 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인권 정책 시행을 막아야

그렇게도 국민들이 우려하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수립/공표되었다. 이 정책은 현 정부의 편향된 인권정책의 표본이며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함으로 소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NAP의 문제점은 종래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도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인 것도 무시하는 행태적 발상이다.

그리고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성 정치'(Sexual Politics)를 용인하므로 인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성적, 도덕적 타락을 부추기는 정부가 되었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또한, 헌법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병역을 거부하는 일부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만들어 주므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실천하는 대다수의 젊은이들에게 부력감을 주고, 그들을 '비양심적인 세력'으로 매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하여 사회의 혼란은 가중되고 잘못된 가

치관을 가진 것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한제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에 대한 것은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남은 것은 이단이나 이슬람 동성애/동성혼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혼란이 가중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런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성 인지 정책과 군대 내 인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군이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무력한

군대가 된다면 이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거기에는 기업들에게도 인권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펴서 민간에도 NAP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인권정책으로 기업까지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점들을 우려하여 지난 7월 12일과 13일에 (기독교 중요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연합) 성명서를 내고 잘못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었고, 시민단체 등은 지난 2달여 동안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식발집회, 열서 쓰기 등을 하였으나 정부는 끝내 국민들의 이런 애절한 부르짖음에도 불구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ASSEMBLIES OF GOD

“차별 금지법의 명목은 차별 금지지만 내용은 ‘기독교 탄압’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그리고 친동성애 정책에 대해 크리스천이 가져야할

성경적인 태도에 대해 교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양떼를 기도와 말씀의 꼴을 먹이시며 악한 길에서 벗어나 선한 길로 이끌어 목양하시는데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경감이 목사님과 교회와 하시는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전국 믿음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 교수 연합’은 그동안 동성애결혼의 합법화의 전 단계로 2007년부터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하는 약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온 법무부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들에 맞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 왔고, 군형법 92조6항(동성애범죄자 처벌 조항) 폐지 운동 세력에도 맞서 동성애자 처벌 조항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교원 숙수무책법이요 학생 타락 약법인 전국 각 지역 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학생인권조례의 독소 조항의 폐지, 그리고 작년도에는 국회 추진 헌법 개정안의 반헌법적 독소조항(양성평등 용어를 양성등으로 교체 등) 폐지를 위해 분투해 왔습니다.

이들 어둠의 세력이 추진하는 약법들이 가져올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재앙적 결과물 좌시할 수 없어 동성애합법화 추진 세력의 정체와 그 불법성을 알리는 데 전력을 쏟았습니다. 1970년 뉴욕 워싱턴 등지에서 시작한 동성애자 퍼레이드(퀴어 퍼레이드) 행사가 2000년부터 한국에 상륙한 이래 2015년부터는 수도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계기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서 올해에는 수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학동아리, 동성애자 부모, 수많은 외국인, 심지어는 몇몇 교회도 동조하였습니다. 이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정치적인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6항 폐기’ 등이 그것입니다. 차별 금지법의 명목은 차별 금지지만 내용은 ‘기독교 탄압’입니다. 미국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길거리 전도와 길거리 찬송이 금지되었고 설교 내용 때문에 목사님이 법범자로 몰렸습니다.

차별 금지법은 성경도 불법 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즈음 인권이란 말은 거의 천사의 웃을 일고 인구에 화자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자(feminis)들도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들은 완벽한 여성 인권은 ‘성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 합니다. 이들은 사람은 남성, 여성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수 십 가지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남성, 여성, 중성, 동성, 흐르는 성 등등도 보도 못한 성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성들을 인정해야 진정한 ‘성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성경말씀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철학에 반대되는 성경말씀에 대적하려는 시도입니다. 올해 검정정으로 나온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슬람에 대한 설명이 10여 페이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기독교인 또는 타 종교인을 저주하거나 죽이라(루카 5: 17, 8:12-17, 47:4, 98:6)는 구문을 신봉하는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기틀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8 페이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근현대사 기술에서는 개화가 애국계몽운동과 항일독립운동에 기여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전혀 기술하지 않는 등 반 기독교적 편향성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이렇게 된 것은 10여 년 전 부터 교육부에 들어간 무슬림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청소년들부터 세뇌시켜 우리나라를 이슬람 화 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각 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 통과시켰거나 통과시키려는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 ‘인권’에는 학생들이 섹스할 수 있는 권리, 임신할 수 있는 권리, 낙태할 수 있는 권리, 종교에 대하여 간섭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지역에서 학생들의 섹스에 대하여 부모가 충고하거나 가기 싫은 교회들 기리고 하면 인권 침해가 됩니다. 자녀가 싫다는데,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밖에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된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매정권마다 발표됩니다. 그 정권 5년간의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전 두 차례 정권 때와는 달리 이번 정권에서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매우 우려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 NAP 정책이 오늘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책화되어 온 나라의 도덕 윤리가 타락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현재의 정체 감소 국면에서 급격히 소멸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1.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 원래는 ‘국민’이었는데 이것을 ‘시민’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세금 혜택을 받고, 불법 이민자들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정책은 무슬림 난민들을 대거 흡수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2. 차별금지에 대한 기본법 제정방안 마련
→ 말은 ‘차별 금지’인데 실제로는 ‘기독교 탄압’입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전도’도 타종교에 대한 차별로 금지됩니다.

3. 장애인 정책, 성주류화 시행
→ 모든 공공기관,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과 ‘장애인 관련 교육’ 같이 또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지 교육이란 한마디로 남자, 여자 이외에도 수 십 가지 성에 대한 교육입니다. 즉 남자, 여자, 게이, 레스비언 양성, gender fluid 이집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가 된다고 주장), 등 수 십 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학교에서는 이 교육을 받은 후게이나 레스비언이 20%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동성애 운동은 그들만의 자유

운동이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동성애는 정성이라는 속삭임을 주입시키는 교육이요 가정을 파괴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4. 성소수자 관련 국어사전 제재어의 등재
→ ‘성소수자’를 정상적 일상적 개념으로 인정하도록 국가가 강제로 사전의 정의를 바꾸겠다는 동성애 독재 정책의 극지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랑, 연애 연인, ‘등의 뜻풀이에 나오는 ’넌’가, ‘의 뜻풀이가 ‘두 사람이,서로가, ‘식으로바뀌게 됩니다. 인간의의식을 강제로 조작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동성애 합법화 등을’ 동성애독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인권법 혐오적 방상내용 심의 강화
→ 아예 언론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이미 동성애가 에이즈(AIDS)의 주 원인이라는 보도는 2011년부터 한국기자협회의 언론보도지침에 따라 금지되어 오늘날 언론 기사에서 동성애의 결과와 잠복기 8년을 거치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질병예방 보도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조장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에이즈 계몽 예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급증 국가로 전락했습니다(매년 1100여 명 발생, 현재 총 14000명 수준, 실제로는 보고되지 않은 환자 포함하면 5만 명 이상, 특히 잠복기 4년~10년 인 에이즈바이러스 보균자를 포함하면 더 많이 발생 예정). 특히 10대~20대의 청소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1인당 매월 수백만 상당의 고액 약값이 전액 무료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라도 동성애 예방 정책과 계몽운동을 펼쳐야 할 정부가 잘못된 인권과 혐오 논리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6. 입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 최근 한법제판소가 소위 양성집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해 대체복무제 시행을 판결하였는데 이는 대다수의 건실한 청년들의 국방 의무 이행을 비양심적 행위로 판정한 것으로 그동안 헌법의 신성한 병역 의무 이행을 합헌이라고 지켜온 한법제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판결을 한 것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를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7. 군인권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
→ 결국 군형법 92조 6 “군대에서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라는 조항을 없애려는 초석입니다. 내부만 중 병장 1명이 동성애자이면 그 내부만 원은 전부 동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군대 내에서 고향 동성애자의 후임 사병에 대한 동성애 행위 강요 범죄가 심심찮게 발생되어 군대내 동성애 범죄 및 에이즈 발생으로 군 전력 약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월 31일 현재 군 인권센터 소장으로 임동하게 동성애자를 임명하였습니다. 군의 인원은 정상인의 인권이 아닌 동성애자의 인권이 될 것입니다.

8. 양성등 문화 확산, 성평등 관념추 제작 및 교육 실시
→ ‘양성 평등’이 아닙니다. ‘성 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은 남자-여자 평등이지만 성 평등은 게이, 레스비언, 양성애자, 동성애자, gender fluid 등 수 십 가지 이상한 성도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소아성애자, 동물 성애자도 물론 포함합니다.

9. 문화다양성 존중 정책 실시
→ 문화 다양성이란 미명 하에 동성애 문화, 이슬람 문화 등의 무제한 자유를 허용하려는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이 무차별로 유입된 유럽에서 벌어지는 각종 테러 범죄가 한국에서도 무차별로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10. 외국인, 이주민, 난민 정책
→ 무슬림에게도 문을 열어주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주민, 난민들을 받아들여 자기들을 지지하는 정당을 고정적으로 투표하여 정치와 이민자 표가 연계되게 하지는 의도입니다.

11. 인권 친화적 교과서 개발 및 권리
→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옹호하도록 세뇌시켰다’는 뜻입니다.

12. 아동 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실시
→ 청소년들에게 성적 인권을 스스로 갖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율권’을 보장하게 하려고 시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인권이다’는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되면 청소년 마음대로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충고는 인권침해가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책(NAP)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전국 2018년 7월 17일 현재, 348개 대학에서 3239명의 교수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민주당자 앞에서 반대시위도 했고, 학부도 연합대표와 함께 식발식도 했으며, 일부 목사들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형서도 썼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원형 교수는 간암 부형 중앙에도 1달째 법무부 앞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NAP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의 시련을 감내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마중물 역할 밖에 못합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택함을 받으신 주님의 종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싯딤에서 살인을 하지 말라는 6계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지손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의 질투신으로 질투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릴 때가 아닐까요? 주님이 주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만든 교회, 우리 선조들의 목숨으로 지켜온 교회가 인간들의 정책으로 무너지려고 할 때, 언제까지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대한민국교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축소되고 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까?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교수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집권당이 밀어붙이는 정책을 막기에는 종교부적의 상태라 많은 사람들의 동침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정부는 8월 7일(금)에 국무회를 통해 NAP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목사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교회성도들이 이끌어주시면 나라를 위함에 빠뜨리는 이 잘못된

된 정책을 막아 우리나라의 국운과 젊은이들의 장래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의 소속 교단장들은 향후 시민단체와 연합해 대통령 면담 요청, 청와대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대규모 반대집회 개최, 전국 교회에 NAP 반대 현수막·포스터 부착, NAP을 반대하는 전국 교회 설교 및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 비상 기도주간 선포 등 실효적 저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희와 동행하시려는 목사님들께 간절하게 다음을 부탁드립니다. 1.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청와대국민청원 및 반대서명에 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 법무부 반대 서명 => https://goo.gl/RcTThX * 청와대 반대 청원 => 8월 7일까지 20만 명 돌파 목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757?navigation=petitions (naver에서 ‘청와대 청원’ 검색 -> 국민청원 및 제안에 들어감 -> 검색창에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를 입력해서 첫 번째 청원 선택.) 2.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그리고 친동성애 정책에 대해 크리스천이 가져야할 성경적인 태도에 대해 교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친동성애 정책 규탄 및 약법 저지를 위한 집회에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배상

동반교연 참여 3249명의 소속 348개 대학 명단
가천대학교, 가톨릭 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야생원,강릉영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개별대학교, 개신대학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신대학원대학교, 건양대병원, 경기과학기술대학, 경기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강릉대, 경인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인신학대학원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계원예술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구미대학교, 국민대학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국제천양신학대학원, 군산대학교, кү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기독교대학교, 기독교대,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가주 중앙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네벨세안신학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 대신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대전신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동강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북보건대학교, 동북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서율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양대, 동양미래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루터대학, 마산대학교, 마히들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목포대학교, 문화씨티감리교회, 문화융합대학, 미국 캠퍼마켓대학교, 미국사우스웨스트대학교·개신대학원대학교, 미래대학교), 방송통신대,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반주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베리야, 국제대학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부경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분당서대학교, 순경여자대학교, 삼성서울병원,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생경나노과학대학,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리별대학, 서산신학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기독교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 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울호림관건문학과, 서원대학교, 서일대학교, 서경대학교, 서해대학교, 선린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호대학원대학교, 성서침례신학대학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 수원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송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 숭의여자대학, 신구대학, 신라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대학교, 신안신대학교, 신한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이세이연합신학대학, 아주대학교, 인동대학교, 안산대학교, 안양대학교, 여주대학, 연변과기대, 연변과학기술대학, 연성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진전문대학,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성심대학, 우석대학교, 우성정보대학,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유한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을지대학교, 의생공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국립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지아 크리스천 대학교, 조지대학(სხლა?), 주안대학원대학교, 중국 해양대,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중앙대학교, 전주보건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천안총신대학교, 청문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신학대학원, 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총회목회대학원, 총회신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치유성심대학원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캘리포니아 신학대학교, 케이씨 대학교, 키르기스탄 오수 국립대,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포항대학교, 포항선린대학교, 폴리텍대학울산, 필리핀크리스찬대학교, 한국 폴리텍 2대학 남인천 캠퍼스,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고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세물족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국영성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국제특약대학원대학교KINGS,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해양대학교, 한나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한중대학교, 함흥신학교대학원대학교, 항공대학교, 해운사관학교, 함성대학교, 해전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산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호크마대학교, 홍익대학교, 햇빛트리티대학원대학교

Alliance Graduation Schools, CHA 외곽대학교, Christian life college, DGST, GIST,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HOKMAH UNIVERSITY, KAIST, KC대학교, SPMTc in Fiji, Templeton University, Texas A and M University, Underwood University, Univ. of Sci. Tech. KIST School, University Malaysia Sabah, UST

편향된 인권 정책은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 단체연합)는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2018년 8월 7일 오전 9시에 정부 광화문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3월 이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을 강력히 반대해온 동반연은 8월 7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히 호소했고 특히 지금까지 사법한 사람 중 8명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발언도 진행했다. 기본계획이 미칠 사회적 피해를 심각히 염려하면서 그동안 20여 차례 반대집회와 사발 및 형서, 평화 행진 등을 이어온 동반연은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성명서
2018년 8월 7일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되었다. 향후 5년간 정부 모든 부처를 통해 실시될 국가 인권정책인 법무부의 기본계획은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했다.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서야 할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긴 것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정체성에 정면 도전한 것이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거짓의 손바닥으로 진리를 가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본계획이 미칠 사회적 피해를 염려하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제왕적 적폐임을 보여주었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며 폭력적 제왕처럼 추진하는 편향된 인권 정책은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거짓과 적폐는 보편 신관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국민들이 겪어야할 고통과 사회적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제왕적 적폐는 신신히 깨어질 것이며, 진리는 거짓을 이기고, 민심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기본계획에서 모든 독소조항이 삭제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부정할 것을 엄중히 선포한다. 그동안 반대 의견을 내었던 모든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여서 지속적인 집회 등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반대 전민단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 특히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 그들의 뼈아픈 실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 것이다.

국민들의 호소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법무부 관계자들이 절감하도록 느끼게 만들 것이다. 하루 빨리 기본계획을 수정하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정책 수립은 조만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대다수 국민들의 힘으로 보여 줄 것을 선포한다. 다시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면서, 이 분노의 성명서를 마무리한다

2018. 8. 7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단체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가혹하고 척박한 생육환경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는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질병예방과 치료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면서 ‘왕의 열매’ (King's Berry)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신비의 열매로서 현대인의 신체의 여러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분

아로니아는 칼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 속에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79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약 4배에 이르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도 포도의 11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과에 포함된 영양성분



효능

- 강력한 항산화 작용 : 유해 활성산소 제거
- 항당뇨 작용 : 혈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 항암, 항염, 항고혈압 (위 보호 효과) : 악성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자살을 유도
- 소염, 항균(살균), 항알러지 작용 :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알러지 증상 개선
- 시력보호 :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 시력을 개선
- 피부 노화방지 : 활성산소를 중화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손상 노화 방지 및 보호
- 심혈관계 질환 예방 : 혈전 발생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 및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기력 개선 효능
- 면역력 강화

섭취 방법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떼떼맛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냥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과일주스와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썬 또는 샐러드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더욱 좋은 효소 발효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무농약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아로니아를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504076-02-072136 (예금주 김갑신)

구입문의 010-3621-4853

환돌 아로니아농장 전라남도 여수시 삼암동 8길 38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희 결혼114는 하나님께 이 사업의 방향을 두고 기도하던 중 미혼 남녀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는것이 국내 선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감동을 받고 전국에서 고생하시며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을 지사장님으로 모시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사장 자격

- 목사님, 전도사님, 신학생, 사모님 ● 장로님, 집사님 ● 믿음의 형제, 자매

혜택

등록비 54만원(부가세별도) : 고객들이 부담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의 이상형을 직접 찾아서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음

- 남녀 매칭 문제 본사에서 전담 - 지사에서는 회원 등록만 전담
- 각 지역별 독점권 부여
- 지사 블로그 제작 지원
- 결혼 미팅파티 행사 지원
- 전국 기독교인 회원 보유
- 본사 새로운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특전 : 본사에서 전국 각 지사로 매달 공유 수당 지급

지사 모집 지역

서울시	성동구, 용산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대구시	지사 계약 완료
인천시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시	서구, 남동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울산시	중동구, 남구, 북구
세종시	세종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상담진행중), 남양주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군포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상담진행중), 광주시
강원도	춘천시, 강릉시(상담진행중), 원주시
충북	충주시, 청주시
충남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공주시(상담진행중)
전남	목포시(상담진행중), 광양시(상담진행중), 순천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경북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안동시, 경산시
경남	진주시, 양산시(상담진행중), 김해시(지사계약완료),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창군
제주도	제주시

☎ 상담전화(전국) 1566-504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무색했던 경건훈련의 열기... ‘청년 여름수련회’

청년봉사선교회 여름수련회가 지난 8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전원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삶’(요 10:27)이란 주제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열렸다.

낮 기온이 연일 신기록을 세우며 밤에도 초열대야 현상이 계속된 사상 초유의 폭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뜨거운 믿음과 사랑의 열정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여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첫 날 개회예배, 조별모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아이스 브레이킹 순서가 있는 후, 저녁 7시부터 당회장 조용목 목사를 강사로한 특강이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조용목 목사는 특강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다. 이어서 조용목 목사는 “구원 받은 자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다.



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믿는다.” “기독교도와 성도들을 전례하고 핍박하는 자나, 그런 사상과 이념을 배격한다.”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을 혐오하는 대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추구한다.” “성경에 합당한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현상과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여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 하는 것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성경적 가치관이고 덕목이며 신앙자세임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조 목사는 성령충만과 성령세례를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진리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감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국가와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청년들을 축복해주었다.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계속해서 2박 3일 동안 공동체 훈련, ‘믿음의 선진들’ ‘이단’ 특강, 조별 모임(I, II, III), 국가와 교회를 위한 에레미아 기도회(I, II), 북한교회 체험, 새벽예배, 개인 묵상 시간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다양한 순서를 통해 신령한 지식을 쌓고, 기도응답을 받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믿음을 북돋워주면서 주의 은혜와 즐거움을 만끽하고 더욱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다.



청년봉사선교회 국내선교부, 지성전에서 선교 봉사활동

복음 전파, 성전 환경미화, 여름성경학교 진행 등 헌신

은혜와진리교회 청년봉사선교회 국내선교부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서산, 포일, 남양, 세종, 대전, 아산, 원주, 대구, 안동성전에서 각각 3박 4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복음전도와 다양한 국내선교 봉사활동을 벌였다.

“전하라! 힘쓰라! 권하라!”(딤후 4:2)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국내선교 봉사활동에는 지난 5월과 6월, 7주 간에 걸쳐 관련 교육을 받으며 행사를 준비해 온 각 성전 청년봉사선교회 소속 75명의 청년과 9명의 청년 담당 교역자들이 참가하였다.

청년들은 이 기간 동안 각 성전 교회당에서 자체 숙식하면서 축호전도, 노방전도, 학교전도를 통해 폭염이 무색하게 구령의 열정을 불사르고 교회학교 성전 꾸미기, 대상전 대청소, 교회당 인파의 환경미화 작업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청년들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교회학교 교사들과 협력하여 여름성경학교를 직접 진행하거나 준비와 진행을 도와주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행사가 되게 하고, 주 안에서 청년과 교사들과 교제하면서 사명감을 크게 고무시켜 주었다.

특히 구역장들이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였으나 결신하지 않고 있던 주민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전도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구역장과 청년 봉사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이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마음이 한층 깊어지게 된 청년들은 짧은 일정을 아쉬워하면서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전과 교회학교가 큰 부흥을 이루게 되길 간절히 기원하였다.



한기총 임원단, 혈서로 NAP 반대 입장 밝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문제점 규탄 및 철회 국민대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 임원단은 지난 8월 2일(목) 오후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문제점 규탄 및 폐지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현재 NAP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소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다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동성애를 조정하거나 옹호 및 동성애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현재 이러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인 NAP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총 임원단은 혈서로 ‘NAP 절대 반대’ 문구를 한 글자씩 작성하고, NAP 폐지에 대



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NAP가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다루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엄기호 대표회장은

“현재 NAP가 독소조항이 포함된 채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전 성도들이 기도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구제 요청에 관한 공문 번역본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구제 요청

사랑하는 동역자 분들께

여러 개의 태풍으로 인한 험한 날씨와 문순 비로 인해 내린 폭우는 곳곳에 상상할 수 없는 홍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중부지역과 남부 그리고 북부지역의 대부분에 며칠 사이에 내린 엄청난 양의 비로 인해 이 지역의 식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이 지역에 홍수로 인하여 이미 교회를 포함하여 3000명의 수제민을 낳았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 코디네이터를 통해 지난 주말 계속해서 내린 폭우로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구제품을 보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목사들과의 네트워크와 그들이 선두에서 구제품을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인력 그리고 저희 교회들이 협력하여 이들 수제민 가족들에게 구제품을 나누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저희의 노력에 재정적인 지원에 관하여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5000 명 수제민 가정에 보낼 구제품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원 된 비용을 제외한 1,000,000페소(한화2120만원)가 모금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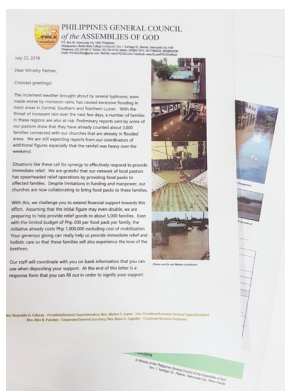
여러분들의 관대한 지원은 정말로 이들 수제민 가족들에게 즉시 구제품이 지원될 것이며 이들 수제민 가족들 또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룬 구제를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스웬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행을 통해 지원하실 것인

지에 관하여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편지의 끝에 여러분의 중요한 후원에 관하여 써 주시면 됩니다.

저희의 긴급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여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는 저희들이 노력한 상황들을 바로 업데이트하여 보고 드리겠으며 저희들의 동역자로서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을 위해 함께 동역 합시다.



필리핀 하나님의성회에서 보내 온 구제 요청에 관한 공문

2018년 7월 23일

사별 로사리오 목사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사회봉사 및 재단 봉사국장

레이 칼루사이 목사

필리핀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후원계좌 : 국민 061701 - 04 - 18033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크리스천 문화예술 최고지도자 과정 모집

문화예술 · 인문학적 콘텐츠 및 ‘교회법, 종교인 과세’ 등 개별상담도

중앙대학교 사회교육처

2018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나온 100년을 교훈으로 기억하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사학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가 최초로 크리스천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크리스천 문화예술 최고지도자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크리스천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예술적 소양과 인문학 및 사회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이 과정에는 문화예술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지역사회 리더, 교회운영 및 부흥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크리스천리더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오는 9월 11일(화) 개강을 앞두고 있는 이 과정은 크리스천 리더로서 목회활동에 필요한 음악, 미술, 영화, 사진, 건축, 문학, 역사 등의 문화예술 및 인문학적 콘텐츠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법, 교회 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조경, 음향, 연출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 또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매 시간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와 강사를 초빙 전문지식을 배우고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중앙대학교 서해우 사회교육처장이 직접 참여하며



(사)한국교회법학회 정재근 사무총장 및 황영복 상임이사가 주임교수로서 수강생과 소통할 예정이다.

특히 수강생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금, 교회법, 교회분쟁과 해결방안 등에 관한 개별상담 및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크리스천 문화예술 최고지도자 과정’은 2018년 9월 11일(화)부터 2019년 6월 11일(화)까지 두학기 동안 매주 화요일 13시부터 16시 20분까지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1월과 2월, 겨울방학 기간에는 수강생들이 학기 중에 학습한 문화예술 및 인문학적 지식을 직접 체험해 보는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이 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에게는 중앙대학교 도서관 활용이 가능한 학생증이 교부되며 본 과정을 끝까지 성실히 수강한 수강생들에게는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과 시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의 교회법무교육과정 수료증,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동문 자격이 부여된다.

수강신청은 중앙대학교 사회교육처 홈페이지(cael.cau.ac.kr)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입학지원서 제출을 통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사항 문의 02-820-6540, 6267
juk8533@cau.ac.kr

2018년 한국창조과학회 하계 워크숍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한윤봉 교수)가 오는 8월 11일(토)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한남대학교(이덕훈 총장)에서 ‘2018년 한국창조과학회 하계 워크숍’을 개최한다. 창조신앙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창조과학과 성경변증’이란 주제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한남대 글로벌센터투어아트리에서 열리며 박형진 교수, 박명룡 목사, 탁지원 소장, 김경태 교수 등이 발표에 나선다.

발표 1: ‘창조과학과 선교’ (박형진 교수, 햇빛트리나티시히대대학원대학교)

발표 2: ‘창조주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박

명룡 목사, 청주서문교회)

발표 3: ‘현 시대의 이단, 사이버 동향과 전략, 그리고 그 대처방안’ (탁지원 소장, 현대종교)

발표 4: ‘뇌의 이해와 영적 반응’ (김경태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 참가등록비: 10,000원

* 참가신청: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www.creation.or.kr)

* 입금계좌: 우리은행 (K)한국창조과학회) 132-125115-13-201

* 문의처 : 한국창조과학회 (02-419-6465/

desk@creation.kr)

특별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날(8월 10일, 금요일) 저녁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금식기도회를 갖는다.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다음세대를 세우는 학회 사역에 대한 공적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한국창조과학회가 교회와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하계 워크숍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창조신앙 회복이 확산되길 기도하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복)성결원’ 갈등, 기성총회와 이사진 대립

복지법인 성결원 운영 관련 소송전으로 이어져

복지법인 성결원 증경임직위원단은 지난 7월 30일(월) 강남구 대치동 소재 ‘중화요리 모리향’에서 복지법인 성결원 운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교단 재정 유용에 대해 고발했다.

이날 증경이사장단 증경사무총장단 증경이사회 등의 대표들이 발표자로 나서며, 주제는 ‘제1탄, 복지법인 성결원의 진상을 밝힌다’였다.

이날 이들은 원래 성결원은 교단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7억 원을 지원해 은퇴교역자 안식관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건축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10억여 원을 받아 갑자기 중증장애인 요양원 시설로 둔갑했고, 정부 산하 법인 재산이 됐다고 했다.

이후 교단 특정세력이 초대 성결원 이사회로 들어갔으나 이들이 교단 교회들의 거액 후원금을 방만하게 사용했고, 사무원과 관리원을 노인요양보호사인 것처럼 배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간 급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지경 취소된 바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1월, 모든 임주지를 퇴거시켰고, 관련 시설을 폐쇄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재신청해 이번 기자회견한 이사회가 성결원에 투입돼 부채를 갚아 나가는 등 경영 정상화를 꾀했지만, 교단 특정세력이 이들을 모함하며, 이사회에서 몰아내고 새 이사진을 구성했던 것

즉 초기에 잘못된 집단이 새로운 개혁세력이 들어오자 다시 잘못을 저지른 세력이 다시 들어와 개혁세력을 모함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세력은 총회 재판위원회를 통해 송윤기 목사(전 기성 교단 총무, 전 성결원 사무총장)를 파

직·출교시켰다. 이는 개인 명의로 총회 재판위에 고소할 수 없고 지방회를 거쳐야 하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 판결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특정세력은 대화를 거부하고 이들 개혁세력 이사회에 대해 고소 및 소송을 하여 성결원의 문제를 전 운영자들에게 전가시켰다. 이와 동시에 전국 교인들에게 “성결원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서명을 받아 탄원과 진정 서명운동을 벌여 사법부에 제출했다.

이번 폭로 기자회견 과정에서 송 목사는 “임금 체불된 것을 정당하게 받으려고 기업유한 것뿐인데, 마치 가압류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것처럼 현 이사회가 거짓말하고 있다”며 “가압류와 운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상황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교역자공제회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에 성결원 현 이사회는 “송 전 사무총장이 임금 체불 8639만 원 중 총회로부터 합의금 60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과 법정이자 1545만 원을 지급하라며 4차 가압류를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성결원 주무관청인 천안시는 가압류 소송이 잇따르자 가압류를 조속히 해제하지 못할 시 영업정지에 처하고 이후 폐쇄될 수 있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결국 송 목사든지, 성결원 현 이사회든지 양측의 주장 중 하나는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성결원 이사회는 또 송 전 총무에 대한 교역자연금 지급 보류를 교역자공제회에 요청한 것만큼은 사실로 드러나 송 전 사무총장의 진술의 진실성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 공동취재단



자살예방 밤길걷기 캠페인

제13회 생명사랑밤길걷기 준비위원회 발대식

한국생명의전화에서는 지난 19일 동대문 베니키아 프리미어 호텔에서 생명사랑밤길걷기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생명사랑밤길걷기 준비위원회는 유동원 상임실무대 회장(동원병원 원장)을 필두로 각계각층 인사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준비 및 지원이라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생명사랑밤길걷기는 한국생명의전화가 매년 세계자

살예방 날(9월 10일)을 맞아 개최하는 대표적인 자살예방 캠페인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220,000명이 참여하였다.

본 캠페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시청, 광화문, 청와대, 남산 등 서울 시내 곳곳을 걷는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그리운 사람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걸으며 시민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린다.

밀알복지재단, 청년 암환자 자립지원 캠페인 대상자 모집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과 다국적 제약회사 한국BMS제약(사장 박해선)이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리부트(Reboot)’ 대상자를 모집한다.

‘리부트(Reboot)’는 암 부형과 치료로 중단된 청년들의 삶을 재작동 시킨다는 의미로, 청년 암환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한국BMS제약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운영기금은 한국BMS제약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부금과 회사의 후원금으로 이뤄진 1:1매칭그랜트 형태로 마련됐다.

‘리부트(Reboot)’는 암 진단 후 치료를 통해 완치 판정을 받은 만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miral.org)를 통해 지원서 다운로드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총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해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취업서비스와 정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한국BMS제약 박해선 사장은 “젊은 암환자들이 늘고, 치료기술의 발달로 암생존율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암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청년 암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암을 이겨낸 청년들이 학업과 경력의 단절을 딛고 일어나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2018 주니어주빌리 청소년 복음캠프 개최

“너와 나, 우리는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로 한동대에서 열려

2018 주니어주빌리 청소년 복음통일캠프가 “너와 나, 우리는 피스메이커”라는 주제로 6일부터 9일까지 경북 포항 소재 한동대학교에서 열렸다.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족의 복음적 통일을 위해 교단, 교파, 단체를 초월하여 연합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빌리 복음통일구국기도회가 한동대학교 통일한국센터와 협력하여 올해로 네 번째 캠프를 개최하게 되었다.

주니어주빌리 청소년 복음통일캠프는 일관된 말씀과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하여,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민족 분단의 현실을 느끼고, 복음통일이란 시대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전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을 신앙, 인격, 실력을 갖춘 통일코리아의 주역으로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여름에 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주니어주빌리 청소년 복음통일캠프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오픈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바 이올린, 기타, 드럼 3인조로 구성된 인디밴드로 현재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가늌동 밴드’가 출연했다.

저녁 집회에는 첫째 날 탈북민 목회자인 사람의교회

북한사랑의선교부 길어진 전도사, 둘째 날은 서울영동교회 교육부총괄 배민수 목사, 셋째 날은 코나열방대학 동북아DTS학교장 마크 조 목사가 각각 ‘복음과 화해’, ‘용서와 화목’, ‘통일과 실천’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복음통일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심어 주었다.

이어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와 송인호 교수의 복음 통일특강, 스탠드업 커뮤니티 김태양 대표, 글로벌SQ연구소 백형열 목사, T-Cross의 탁은영 소장, 한동대 졸업생 김진하 청년의 선택 진로특강을 열어 청소년들의 고민을 풀어갈 심리리를 제공했다.

주니어주빌리 대표 이병철 목사(춘천주향교회)는 “청소년 복음통일캠프의 가장 큰 장점은 한동대 재학생들이 리더와 헬퍼로 1조에 2명씩 포함된 소그룹 운영”이라며 “한 명의 청소년도 은혜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전인적으로 돌보는 소그룹은 이미 작년에 그 진가를 발휘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주니어주빌리 청소년 복음통일캠프는 복음으로의 통일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세대를 양육하기 원하는 목회자 혹은 교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캠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02-3478-0673, <http://jubileeuri.com/camp1>)

CTS기독교TV·한국세계선교협의회 MOU

세계 선교사 네트워크와 방송의 융합, 복음 전파 밑거름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이사장 신동우, 이하 KWMA)는 3일 CTS빌리티미디어센터에서 MOU를 체결하고, 세계 선교사 네트워크와 방송의 융합과 복음전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외 통신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위기관리긴급구조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며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CTS 감경철 회장은 “CTS와 KWMA가 상호협력하여 젊은 선교사를 육성하고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KWMA 신동우 이사장은 “선행과 나눔에 힘쓰는 CTS의 동역으로 현지 이웃들은 물론, 해외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도 큰 위로를 전할 수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작은교회에 부흥의 기적이

우리 교회는 지난 2017년 1월 19~20일,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가족세트전도 훈련원 원장 박영수 목사를 초청해 가족세트 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약 50개 교회가 참석하여 많은 관심 속에 은혜롭게 많은 열매를 맺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진리등대교회와 사랑이넘치는교회와 연합, 두 교회가 매일 새벽 예배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앗이 전도 1시간~2시간 전도를 실시했다.

매주 수요일에는 2개 교회가 서로 번갈아 가며 전도 성경구절, 치유성경구절, 기도성경구절을 함께 통독하고, 1시간 이상 해당교회에서 전도를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족세트 전도를 지속했다.

2017년 11월에는 가족세트전도를 통해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새가족 초청 잔치를 실시하여 약 300명의 성도가 초청되어 초청 잔치를 하고 이후 예배에 적극 참석하도록 계속 격려했다.

교회에서 가족세트전도와양육원지를 매주 보내어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주님의 은혜로 2018년도 6월까지 교회출석, 6개월이 된 5명의 학습교인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명의 새가족이 등록하였고, 2018년도 6월에는 세례교인 2명이 세워졌고, 2018년도 5월에 새가족 2명 등록, 7월 15일 3명 등

록, 7월 22일 2명이 등록하는 등 작은 교회에 매주일 새가족이 오고 있다.

가족세트전도의 장점은 전도에 대한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 훈련을 받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밖으로 나아가 전도하면 된다는 데 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하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세트전도는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데 탁월한 전도법이다.

특히 작은 교회들은 가족세트 전도 훈련원장 박영수 목사를 초청하여 훈련 받아 가족세트 전도를 접목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날로 부흥발전되길 소망해 보며 가족세트 전도는 이 시대에 탁월한 전도법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꼭 가족세트 전도로 주일마다 새가족이 등록하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한다.

2018. 7. 27. 부산에서
사랑이넘치는교회 백한호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경북 여자컬링팀, 나눔도 국가대표급

월드비전, 경북컬링팀 ‘팀킴’과 해외 아동 돕기 캠페인 런칭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www.worldvision.or.kr)이 8월 1일(수) 경북 여자컬링팀 ‘팀킴’과 함께하는 ‘타임 포 미라클(Time For Miracles)’ 캠페인을 론칭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 아동 후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평창올림픽 최고 인기 대표팀 중 하나였던 ‘팀킴’이 참여했다. 팀킴 멤버들은 2010년부터 월드비전 해외 아동 후원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올림픽 때에는 후원해왔던 보스니아 아동이 응원 메시지를 전함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월드비전은 이번 캠페인 론칭을 기념해 1일(수)부터 TV CF를 선보인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을 주제로 하는 이번 영상은 김민정 감독을 비롯하여 김은정,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이 선수 등 ‘팀킴’ 전원이 출연한다. 경북컬링팀이 컬링 불모지에서 누군가 건넨 희망의 응원으로 은메달을 획득한 것처럼, 우리가 건넨 희망의 후원으로 후원 아동에게



도 기적을 만들어주자는 내용이다.

또한, 월드비전은 후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9/30(일)까지 온라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월드비전 홈페이지 내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해외 아동 후원을 신청하면, 추천을 통해 총 20명에게 경북 여자컬링팀의 진필 사인 티셔츠를 증정할 예정이다.

경북컬링팀 김민정 감독은 “연습할 경기장조차 없었던 우리 팀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도

움의 손길이 있었다. 우리의 정신적 멘토이신 김경두 교수님은 항상 받은 도움을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이 가르침에서 출발하여 우리처럼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올림픽에서 받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활동에 앞장설 것이며, 이번 캠페인이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함께 만들어가는 나, 너, 우리의 꿈”

월드비전, 제3회 꿈꾸는아이들 국토대장정 출정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 <http://www.worldvision.or.kr>)이 7월 30일(월) 강원도 삼척에서 ‘제3회 꿈꾸는아이들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열고 대장정을 시작했다.

‘꿈꾸는아이들 국토대장정’은 국내의 꿈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사업의 일환으

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 이은식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삼척지회장 등이 참석해 대장정을 앞둔 참가자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참가자 대표 아동의 선서와 함께 행군기가 전달돼 제3회 월드비전 꿈꾸는아이들 국토대장정의 출정을 알렸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체험담

- 영등포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00 목사님은 해마다 감기로 인해 불편한 일이 많았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를 하고난 후 감기도 걸리지 않고 입냄새도 사라져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 부산에 사는 권00 권사님은 풍치로 늘 음식 먹기도 불편했는데 옥금수(소금물)로 양치하고는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다는 재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 전국 신학생 연합 개강수련회

주제 :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 (롬 12:2)

강사



조용묵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임용재 목사
교단 총회장
산정리순복음교회



임종달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전주은혜와진리교회



김용덕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영동제일교회



김인찬 목사
교단 중경총회장
청신교회



엄기설 목사
교단 부총회장
은혜와진리교회



신재영 목사
교단 총무
새김전교회



변원식 목사
청조교회

준비위원



윤경현 목사
신학발전위원장
보은순복음교회



조선평 목사
교육국장
대림제일교회



임형순 목사
신학교리국장
이변교회



이경진 목사
교단서기
다사랑교회



오세준 목사
청년국장
순복음감동은교회

일시 2018년 8월 20일(월) ~ 21일(화) 1박 2일

장소 은혜와진리수양관 (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주관 신학발전위원회, 신학교리국

대상 총회 산하 전국 신학교 재학생 및 교수 전원

회비 1인당 3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02-1077-0100-11, 임형순-신학교리국 국장)

문의 및 연락처

신학교리국 국장 임형순 목사
(010-9115-4727, zoollia@hanmail.net)

광고 사항

1. 참석인원(교수, 신학생)을 2018. 8. 6(월)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명찰 및 숙식준비)
2. 접수는 2018. 8. 20(월)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3. 신학교별 장기자랑 시간에는 학교소개와 장기자랑을 함께 합니다.

첫째 날(8월 20일 월요일)

시 간	프로그래	내 용
12:00~13:00	등 록	
13:00~14:00 (60분)	개 회 예 배	찬양 : 총회신학교 시회 : 신재영 목사(교단 총무) 기도 : 광주신학교 교수 설교 : 임용재 목사(교단 총회장)
14:10~16:00(110분)	특 별 강 의	시회 : 임형순 목사(신학교리국장) 강사 : 조용묵 목사(정책위원장)
16:00~16:10	사 진 촬 영	
16:20~17:50 (90분)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진행 : 변원식 목사(청조교회)
17:50~19:00	저 녁 식 사	
19:00~21:30 (150분)	목회자의 영적 성숙	찬양 : 예하성 전북신학교 시회 : 부산신학교 교수 한금 : 총회신학교 학생회장 강사 : 임용재 목사(교단 총회장)
21:40~23:00(80분)	신학교별 장기자랑	시회 : 오세준 목사(청년국장)
23:00~	취 침	전국신학교학장 및 교수 간담회

둘째 날(8월 21일 화요일)

시 간	프로그래	내 용
06:00~07:00	자 유로 운 금 식	빵, 시리얼 자유취식
07:00~08:00 (60분)	목회자의 세계관	시회 : 윤경현 목사(신학발전위원장) 강사 : 김용덕 목사(중경총회장)
08:00~08:30	산책 및 개인정비	
08:30~10:00 (90분)	목회자의 성공관	시회 : 조선평 목사(총회신학교 교수) 강사 : 김인찬 목사(중경총회장)
10:10~11:40(90분)	목회자의 물질관	시회 : 오세준 목사(예하성 총회신학교 교수) 강사 : 임종달 목사(총회목회 대학원 원장)
11:40~13:00	점 심 식 사	
13:00~14:00	폐 회 예 배	찬양 : 예하성 부산신학교 시회 : 이경진 목사(교단 서기) 기도 : 전북신학교 교수 강사 : 엄기설 목사(교단 부총회장) 한금 : 예하성 광주신학교 학생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용재
총 무 목사 신재영

신학발전위원장 목사 윤경현
신학교리국장 목사 임형순

“이단들에 의한 피해 경계해야”

‘이단의 폐해’ 정통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 보도해야 한다

최근 모 종편방송에서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이단성이 있는 모 교회에 대하여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방송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교회 여자 목사

와 신도 400여 명이 남태평양상의 폐지에 모여 ‘이곳이 최후의 낙원’이라며 집단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감금과 폭행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아주 명목으로 현금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 교회 여자 목사는 지난 24일,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특수상해죄’로 구속된 상태이다.

또 언론 보도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도들의 말에

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성경론, 성경해석, 기독교, 삼위일체론, 종말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단으로 규정할 바 있다.

그리고 예장 고신교단에서도 2015년 ‘참여 금지’ 결정을 내렸고, 2016년 예장 통합교단에서도 저들의 자의적 성경관과 기독교적 심각한 오류를 들어 ‘이단성’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였다. 같은 해 예장 합동교단에서도 ‘집회 참석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런 기독교계의 결정에 대하여 이단성이 있는 그 교회에서는 예장합신 교단이 있는 건물 앞에 와

어느 시대에도 이단들은 있었는데 그들에 의한 정신적, 재산적, 종교적 피해는 그들에게 속았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기존에 간전한 종교에 대하여도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영적 삶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교회도 이단들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양의 발을 쓴 이리와 같은 이단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악행도 철저히 조사하여 근절시켜야 한다.

“어느 시대에도 이단들은 있었는데,
그들에 의한 정신적, 재산적, 종교적 피해는

그들에게 속았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하면 그 교회 목사와 가족들까지 신격화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물론 그에 대한 자세한 혐의점은 경찰의 조사에서 분명히 밝혀지겠지만 신도들 수백 명이 ‘최후의 낙원’이라며 해외에서 집단 생활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과거에 흑새부민하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이단들의 행태와 수법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미 이 교회는 한국기독교로부터 이단 및 교류금지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2014년 예장 합신

서 항의 집회를 하고, 2015년 신년하례예배 장소에 난입하여 ‘이단을 밝히라’며 신년하례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말가루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 이는 정상적인 교회 성도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과격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보여 ‘최후의 낙원’이라며 한국 국민들 수백 명이 해외에 나간게 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것이 강제적이거나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를 밝혀 명료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단들의 수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그들에게 속아서 가정파괴, 직장 그만두기, 학업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종교를 방자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건강한 종교는 가정과 사회를 행복하게 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각 언론들도 이러한 사건을 보도함에 기존의 기독교와 구별하여 정통교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여 보도하여야 한다.

— 한국교회언론회

제4회 서울YMCA 청소년 모의유엔회의 실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기회

서울YMCA(이석하 회장)는 청소년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YMCA만의 세계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4회 서울YMCA 청소년모의유엔대회(MUNY)를 8월 4일~6일 2박 3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실시했다.

2015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회의는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영어토론능력 향상,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사고능력을 키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학생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토론함으로써 지구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국제사회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 미하엘 리이터러(Michael Reitterer)대사가 참여해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본 회의의 대상 수상자로는 권형준, 이종전, 오



민주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고, 수상자에게는 뉴욕 UN본부 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제4회 서울YMCA 청소년 모의유엔 대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취동아오츠카가 함께 참여해 청소년들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함께 했다.

서울YMCA 청소년 모의유엔(MUNY)의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6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가능하며, 주제 및 관련내용은 서울YMCA 청소년활동부 홈페이지(www.youthymca.or.kr 또는 www.muny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5회 서울YMCA 모의유엔은 2019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사설

진정한 의미의 광복

일제 식민지하에서 벗어난지 어느덧 73년째를 맞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이루기 위해 오늘의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도 문제, 역사 망언 등 여전히 침략행위를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노선을 노골화하는 데는, 우리 사회가 북한문제에는 여론을 집중시키면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하고 금방 지나고 마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인들에게 억눌려 임신여건을 당해야 했던 슬프고 끔찍한 나날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인 것이다.

이 땅의 진정한 광복은 과연 언제 도래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하루 속히 일본 문제를 잘 정리하고, 유엔의 주도 아래 진행되는 북한의 핵 폐기 프로그램이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세계 속에 영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나가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한편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

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헌법개정을 통해 자유를 포기하려는 세력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정파당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계획경제가 근간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술하게 입증되었듯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어떤 일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리고 확고한 대비태세 즉 힘이 없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일본의 강요한 침략 근성을 확고한 의지로 타파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안정된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기독교 역사 축소와 왜곡

진실역사교육연구회(대표 홍영태)에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중·고등 역사·세계사 교과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을 개최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홍영태 대표는 ‘우리나라의 역사왜곡과 역사지우기 혹은 대한민국 부정현상과 세계사에 나타난 특정종교편향성의 경향이 일관되게 연계성을 가지고, 초·중·고교 교과서에 나타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도’라고 규정하고,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교육부이며, 교육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패륜적인 민중사관과 왜곡된 역사가 아닌 오직 진실을 담은 역사 교과서와 세계사 교과서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다’고 하였다.

이날 이동주 소장(선교신학연구소)은 이슬람 편향적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미래엔의 ‘고등학교 세계사 (최준재 외 5인 저술)에 보면, 이슬람교에 대한 서술은 18페이지에 달하는데, 불교 역사는 6페이지를, 반면에 기독교, 개신교를 포

함한 것은 10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으나, 용어조차 낮은 ‘크리스토프’를 사용하여, 매우 애매하게 서술하였으며, 기독교개신교판의 역사 서술은 불과 2페이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는 종교 인구 비례로 보아도 그렇고, 종교 간 우리 생활과 밀접성을 놓고 보아도, 이슬람교에 크게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역사교과서는 이를 배우는 입장에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다. 역사는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평가이며, 그 역사를 통해 형성된 역사관이 곧 개인의 인격과 인성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종교에관해서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정부는 이런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도록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과 감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는 영원히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도 바른 여론 수렴을 통하여, 제대로 되고, 정직하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오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경영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2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증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자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설교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 일시** 2018년 8월 27일(월)~8월 28일(화) 1박 2일
-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 031-298-3739)
- 대상** 전국 여교역자국
- 문의** ① 국장 한순남 목사 (010-2853-8190)
② 차장 김바울 목사 (010-8652-9340)
- 계좌번호** 농협 352-1333-4784-13(한순남)
- 회비** 일만원(접수시 입금)
- ※여러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 에 4:14 -

2018년 하계세미나 및 야유회 일정표

	8월 27일(월)		8월 28일(화)
	개교회에서 → 전원성전으로	7:30~8:30	아침식사
		9:00~10:00	폐회예배 → 석모도 출발
13:00~14:00	접수	13:00~14:00	점심시간
14:30~16:00	개회예배 조용목 목사	14:00~16:30	자연속으로 (석모도미네랄온천)
16:30~18:00	기도회 1-임웅재 목사	16:30	집으로 교회로
18:00~19:30	저녁식사		
20:00~22:00	기도회 2-고문 목사		
22:00 이후	자유시간		

준비물 : 세면도구, 회비 일만원 접수시 수납

♡ 모시는 글
할렐루야!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주의 이름으로 교단산하에 속한 모든 여교역자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여교역자국을 은혜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 드리며
올해도 여교역자국 여름수련회를 1박 2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회예배로 시작하여
총회장님 그리고 고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뜨거운 기도회와 석모도에서의
친교로 영육간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부디 여교역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으로 영육의 회복과 힐링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렐루!
-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 올림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고문 정부용 목사
대림별교회



자문 신동숙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국장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지부장

차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선교부장	섭외부장	사회부장	찬양부장	예배부장	봉사부장	정보부장
손복음진리교회 김바울 목사	일산별교회 조영란 목사	희복의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예전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경문교회 이경자 목사A	순복음삼동교회 조은주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군일순복음교회 김종애 목사	복중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순복음기쁨과기쁨교회 이명순 목사	내화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서울중부지부 지부장	서울중앙지부 지부장	경기지방회 지부장	경기중앙지부 지부장	경기남지부 지부장	안산시흥지부 지부장	경기북지부 지부장	일산지부 지부장	김포지부 지부장	대전지부 지부장	충남지부 지부장	충남지부 지부장
사랑과평화교회 홍현자 목사	예수왕교회 정애스녀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금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시냇가예심은나루교회 표현자 목사	임동교회 이경자 목사B	풍성한생명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목자교회 김현시바 목사	대성사도교회 임연임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항주지부 지부장	경남지부 지부장	영남동지부 지부장	부산지부 지부장	부산동지부 지부장	전북지부 지부장	광주지부 지부장	호남지부 지부장	인천지부 지부장	은진지부 지부장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동명순복음교회 김덕숙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이순애 목사	하늘소망교회 김경옥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황현선 목사	순복음우리교회 이화숙 목사	순복음길교회 황희숙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정복례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신은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